

아시아교육연구 20권 2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2, pp. 591-615.

<https://doi.org/10.15753/aje.2019.06.20.2.591>

## 소설 『동의보감』에 나타난 교육적 관계 분석\*

육정미(陸丁泮)\*\*

최성욱(崔成旭)\*\*\*

### 논문 요약

소설 동의보감은 한의학의 제재로 등장인물 유의태, 허준, 유도지 간에 전개되는 갈등과 희비를 섬세하고 박진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유의태를 스승으로 모신 허준과 유도지가 경쟁적으로 의술을 익히는 관계를 묘사한다. 이 연구는 소설의 줄거리를 교육의 관점에서 주목하여 등장인물 간에 교육적 관계가 어떤 양태로 전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참고로 교육적 관계의 형성, 유지, 종결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고, 그에 비추어 소설의 내용을 해석하였다. 교육적 관계를 식별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장상호의 교육분위론을 주요 분석틀로 삼았으며, 소설 텍스트의 분석을 위해서 해석학적 방법에 의거하였다. 연구 결과, 유의태와 허준은 교육적 관계의 요건에 부합한 반면, 유의태와 유도지의 관계는 그렇지 못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설 동의보감의 대비적 전개구도는 스승-제자 관계를 다루는 문학작품의 모티프를 재현해서 보여준다. 소설 동의보감을 통해 교사-학생 간의 관계가 교육적 관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를 비롯한 생활공간에서 진행되는 교육적 관계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소설 동의보감, 교육적 관계, 스승, 제자, 상구, 하화

\* 이 논문은 육정미의 2018학년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 제1저자, 대전장대초등학교 교사

\*\*\*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근대 산업화 이후 등장한 학교는 교육만 이루어지는 배타적 장소가 아님이 사실적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보호감독 기능, 사회선발 기능, 교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Reimer, 1971). 다양한 목적을 띠고 생겨난 학교는 인간관계 면에서도 복합적인 공간이다(장상호, 2003). 학교 안에는 물리적 관계, 생물적 관계를 비롯하여 세속적 관계, 수도적 관계, 교육적 관계 등 온갖 유형의 관계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교육기관”<sup>1)</sup>으로 구가되며, “교육=학교태(schooling)”라는 상식적 가정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물론 학교 역시 교육만 이루어지는 곳도 아니다. 이제까지의 많은 연구들(Goodman, 1964; 장상호, 1986, 1990 등)에서 “교육=학교태”가 단지 대중적인 미신에 불과함이 밝혀졌으며, 일부(장상호, 1991, 1994)는 교육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많은 이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은 많은 용어의 허상을 밝히고 해체하고 재정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몰두하였다(장상호, 2001, 2007; 김재용, 2014; 김지현, 2015; 신기현, 2013; 이상준, 2014; 최성욱, 2014; 한수연, 2013, 2014).

‘교육=학교태’라는 신화를 근저에서부터 검토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교육적 관계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보면, 제도화된 학교의 등장 이후에는 교사-학생의 관계를 “교육적 관계”와 동일시해 왔다(장상호, 1990). 최성욱(2004)에 따르면, 교육과 관련된 개념의 재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교사는 곧 “교육하는 사람”, 학생은 곧 “교육받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태=교육”이라는 명제의 진리성을 의심해 본다면 ‘교사-학생 관계=교육적 관계’라는 등식 또한 다시 고찰해 볼 문제이고, 동시에 교육적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제기된다.

교육은 삶을 구성하는 인자의 하나이며, 학교를 비롯한 삶의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육에는 반드시 교사와 학생이라는 신분과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장상호, 1990).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이라는 분야에서 세속적 관계와 수도적 관계, 교육적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전개되는 가운데 교육적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소설 『동의보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 『동의보감』에는 한의학이라는 영역을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며,

1) “교육기관”에 큰따옴표를 붙인 이유는 교육을 일상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관행적 인식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즉, 따옴표 안의 “교육”은 이론적으로 구명되어야 할 대상임을 보여준다.

같은 수도계<sup>2)</sup>를 공유할지라도 교육적 관계를 맺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공존하고 있다. 가령, 〈유의태-허준<sup>3)</sup>〉의 관계는 순탄치 않음에도 종결 국면까지 이어지는 데 비해, 〈유의태-유도지〉의 관계는 중간에 급격하게 단절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자에 비해 후자의 관계는 교육적 관계의 내적인 규칙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의술이라는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와 그 변화의 추이를 세밀하게 보여주는 소설 『동의보감』은 인간관계의 제반 양태와 특질을 서로 비교해 볼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교육의 내적인 규칙(‘내재율’)이 어떤 것인지를 극적인 형태로 안내해 주리라고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설 『동의보감』에 등장하는 인물 간의 관계를 세속적 관계, 수도적 관계, 그리고 교육적 관계의 측면에서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학교에서 교사-학생의 관계가 따라야 할 스승-제자의 원초적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교육적 관계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첫째, 소설 『동의보감』에서 볼 수 있는 교육적 관계는 세속적 관계나 수도적 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소설 『동의보감』에 나타난 교육적 관계의 전개양태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초점은 이제까지의 연구와 달리 소설 『동의보감』을 수업의 소재가 아니라 교육적 관계의 고유한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 말하자면, 문학수업이 아니라 교육연구의 일환으로 소설을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분석틀은 교육적 관계에 관해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이경승, 2004; 김숙희, 2010 등)에서는 소설 『동의보감』을 수업의 소재로 사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효과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이전의 “교육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서 대부분 교사-학생 관계를 기본적인 분석틀로 삼았다. 그런데 그러한 접근방식에는 일정한

2) 수도계는 인간의 내면적인 잠재가능성을 최고조로 실현하여 궁극의 위대성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장상호, 2003, 2009a). 수도계에 대해서는 본 결과 Ⅲ. 1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한다.

3) 이 논문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인물1-인물2〉라는 기호를 써서 표기한다. 유의태와 허준의 관계는 〈유의태-허준〉으로 나타낸다.

한계가 있다. 우선, 교사-학생 관계가 무조건 교육적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 그 하나의 이유이다. 이 말은 교사-학생 관계가 교육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계가 성립하는 특별한 요건이 있고 그것을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소설 『동의보감』의 시대적 배경이 오늘날의 학교상황과 다른 조선시대이며, 또 학교교과가 아닌 한의학을 소재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이다. 즉,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교사-학생 관계라는 통상적인 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적, 공간적 상황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소설 『동의보감』을 소재로 교육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는 학교라는 제도적 형태를 벗어난 별도의 분석틀이 요청된다. 근자에 장상호(1991, 1994, 2005, 2009a, 2009b)가 제안한 교육본위론은 비교적 이에 부합하는 이론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가 제시한 교육이론에서는 교육을 학교와 동일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등과 구별된 근원적인 삶의 한 양상으로 파악함으로써 교육적 관계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교육본위론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세속적 관계, 수도적 관계, 교육적 관계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장상호, 1997: 68-69). 세속적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라는 삶에 유리하게 적응하기 위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세속적인 관계에서는 권력, 재물, 지위 등 생존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중요시한다. 이에 비해, 수도적 관계는 학문, 예술, 도덕 등 인간의 내면적인 잠재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를 가리킨다. 수도적 관계는 내면의 정신을 갈고닦은 정도를 뜻하는 품위(品位)의 내재적 가치를 그 외재적 가치보다 소중하게 여긴다. 교육적 관계는 이런 수도계의 품위 사이에 존재하는 우열을 활용하여 그 높고 낮은 각 단계를 연결하는 매개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관계이다. 교육적 관계는 세속적 관계, 수도적 관계와 구별된 그 나름의 고유한 범주와 가치를 지니며, 그 구별을 근거로 다른 관계들과 이웃하면서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교육본위론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세속계, 수도계, 교육계, 기타 세계들 간에 갈등과 경합 혹은 협력과 조화를 통해서 유지되고 지속된다. 각 세계는 서로 다른 목적, 가치, 질서, 행동양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원적인 가치의 병립과 공존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으며, 선택에 따른 쏠림과 치우침은 불가피하다. 세속계, 수도계, 교육계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활 자체가 판이하게 전개될 수 있다(장상호, 2009a: 5-6). 세속계를 위주로 하면 생활의 중심이 세속적 가치의 실현에 쏠리며, 그로 인해 수도계와 교육계는 세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파악된다. 인간관계도 어떤 세계를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태가 결정된다. 동일한 두 인물의 관계라 할지라도 어떠한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그 내재와 외재, 전경과 배경, 목적과 수단이 일거에 뒤바뀌게 된다.

본 연구는 소설 『동의보감』에서 교육계, 세속계, 수도계를 본위로 하는 관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교육적 관계의 전개양태를 살펴보기 위해

그것을 시간순서에 따라 관계의 형성과 유지와 종결의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교육적 관계와 여타 관계의 차이에 유념하면서 소설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설의 의미를 파악하는 적절한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소설의 형식을 띤 문학작품을 하나의 텍스트(text)로 보고, 텍스트로서 소설에 담긴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해석학에서 말하는 해석학적 순환에 의거하여 작품을 해석하고자 한다. 해석학적 순환은 텍스트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된 어느 부분만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관련 속에서 파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Palmer, 1969/2011, p. 148). 본 연구는 이러한 해석학의 원리에 따라 텍스트의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를 오가며 부단히 그들 사이의 관련을 반추함으로써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교육적 관계에 관한 연구

#### 1) 역사적 사례를 통한 교육적 관계 연구

역사적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적 관계를 조명한 최성욱과 신기현(2000)은 판소리 전승사에서 도제교육의 양상과 원리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판소리 전승에서 중심을 이루는 도제교육이 교육적 관계의 기본원리를 따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연희(2000)는 불교 경전인 아함경에서 교육적 관계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였다. 교육적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 유지, 맺음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요건과 양상을 확인하였다. 또, 아함경에서 교육적 관계를 맺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하였다. 이시영(2005)은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의 삶에 주목하여 그의 활동을 메타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원불교를 소재로 제자들을 가르친 소태산의 태도를 분석하여 접제자<sup>4)</sup>를 기르는 교육적 관계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편, 백진주(2017)는 가야금 산조의 전승사례를 대상으로 교육적 관계의 양태를 고찰하였다. 그는 가야금 산조의 전승과정에서 교육적 관계가 세속적 가치와 무관하며 오직 자발적 선택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 관계가 지속되었음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김유리(2017)는 궁중음식을 소재로 한 도제식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도제관계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단순한 소통이나 내용 전달보다 체험의 형성과 변형적 재구성을 적극 유도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역사적 사례를 살펴본 이상의 연구들은 실제 사례를 다룬 점에서 사실에 충실하지만, 기록에 의존

4) 후대에 제자를 기를 제자를 ‘접제자’라고 한다(장상호, 2009b: 189, 209).

하는 까닭에 사례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꼭 과거기록에 의존할 이유는 없다.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을 직접 조사한다면 보다 풍부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관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사례 연구는 아직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 2) 소설 장르를 통한 교육적 관계 연구

엄태동(1990)은 소설 분석을 통하여 실제 사례가 아닌 문학작품에서 교육의 사례를 밝힐 수 있음을 보였다. 그는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에서 가르침과 배움의 의미를 찾고 그 구조를 밝혀보려고 시도했는데, 이를 통해 교육이 다른 인간사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구조성을 지님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소설 장르 분석을 통해 연구의 폭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교육적 관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로서는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설이 그리는 세계는 사실과 구별된다. 즉, 소설은 작가의 상상에 의해 지어낸 허구적인 이야기이다. 교육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므로 소설을 통해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이 지닌 허구성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소설의 허구성이란 작가가 지어낸 가공의 인물과 사건에 의해서 구성된 의미를 뜻한다. 이때, 소설은 그 자체로서 진실성을 가지며, 소설이 추구하는 진실은 사실을 얼마나 정확히 밝히는가,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소설에는 작가가 삶을 통해 발견한 진실이 담겨 있다. 소설은 인생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 투영된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비록 허황되고 과장된 것이라 해도 소설에는 작가가 관찰하고 경험한 진실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소설은 작가가 만든 허황된 이야기이지만, 그가 발견한 진실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다(유영태, 2001).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엄태동(1990)은 소설에서 찾아낸 교육의 모습을 실제 사례인 사대스승과 비교하여 현실의 교육적 관계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최성욱(1994)의 경우 소설과 이웃한 설화를 분석하여 교육의 구조를 포착하는 연구를 진척시켰다. 이들은 소설과 설화 같은 서사가 교육적 관계를 밝히는 통로로서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이 교육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가 밝혀낸 것만으로 교육적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이유에서 소설 『동의보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소설 『동의보감』을 소재로 한 연구

소설 『동의보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소설 『동의보감』 자체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는 소설 『동의보감』과 관련한 “교육연구”이다. 소설 『동의보감』 자체에 대한 연구에는 이이화(1992)와 홍원식(1991)의 비평이 있고, 소설 『동의보감』과 관련한 “교육연구”로는 이경승(2004)와 김숙희(2010)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이이화(1992)와 홍원식(1991)은 주로 소설 『동의보감』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이에 비해, 이경승(2004)과 김숙희(2010)는 소설 『동의보감』을 소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경승(2004)의 경우, “소설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 선택한 소설이 바로 『동의보감』이었다. 김숙희(2010)는 소설 『동의보감』을 활용하여 학습방안, 정확히 말하면 “소설수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설 『동의보감』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연구들은 본격적인 의미의 교육연구라고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그 이유는 소설 『동의보감』을 학교수업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일 뿐, 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론적으로 확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소설 『동의보감』을 교육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소설 속에 묘사된 교육의 양상을 밝히는 연구가 새삼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소설 『동의보감』에 대하여 본격적인 의미의 교육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면에는 그러한 분석에 적절한 해석틀을 갖추지 못하였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러한 과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한 만큼, 소설 『동의보감』에서 교육적 관계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분석틀에 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 Ⅲ. 교육적 관계의 기본요건과 전개양태

수도계 내의 품계를 토대로 선진과 후진은 서열을 다투는 경쟁 상대이지만, 그 품차를 역이용하여 유대와 협동을 도모함으로써 스승과 제자 간의 화합과 결속을 맺을 수 있다. 그것이 교육적 관계이다. 이때, 제자가 스승과 동등한 수준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상구(上求)라고 하고, 스승이 자기 경험을 되살려 제자를 이끌어주는 과정을 하화(下化)라고 한다. 교육적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협력을 토대로 상호 공존과 호혜의 인간관계를 지향한다(장상호, 2009a: 74-76). 이 장에서는 교육적 관계의 기본조건과 그 시간적 전개양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교육적 관계의 기본도식

장상호(2003)는 교육적 관계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성립하는 독특한 관계라 칭한다. 스승과 제자는 수도계적으로 보았을 때 선진과 후진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수도적 관계와 다르게 교육적 관계는 수도계적인 항목(X)과 교육계적인 항목(E)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frac{\text{갑}}{\text{을}} = \frac{\text{선진}}{\text{후진}}(X) + \frac{\text{하화}}{\text{상구}}(E) \Rightarrow \frac{\text{스승}}{\text{제자}}$$

[그림 1] 자연인 갑과 을의 교육적 관계(장상호, 2009a: 138)

[그림 1]에서 자연인 갑과 을의 교육적 관계 도식을 살펴보면, 교육적 관계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를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교육적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수도계를 공유하고 있는 두 자연인이 있어야 한다. 두 사람은 같은 수도계 내에서 서로 다른 품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연인 갑과 을이 있다고 했을 때, 갑이 선진이고, 을이 후진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선진과 후진이라는 위치는 수도계적 위치이다. 수도적 관계는 품위의 차로 인해 비대칭적이면서 품위의 우열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이다. 비대칭성으로 인해 서로를 이해할 수 없으며, 품위를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배타적인 면을 보인다(장상호, 2003).

한편, 같은 수도계를 공유하고 있는 선진과 후진이 있는 것만으로는 교육적 관계라 볼 수 없다. 교육적 관계의 기본 도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화와 상구이다. 상구와 하화는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다. 즉, 상구와 하화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대칭적인 성격을 띤다. 상구와 하화는 서로 서로를 필요로 하며, 그 사이의 공조적 협력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장상호, 2009a: 138).

수도계적인 항목과 교육계적인 항목의 결합을 통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했지만, 수도계적 항목과 교육계적인 항목이 동등하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실상 교육계적인 항목에 의해 수도계적 항목이 극복될 때에만 교육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교육계적인 조건이 수도계적인 항목을 극복하면서 결합했다고 해서 교육적 관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도계적인 항목과 교육계적인 항목이 올바르게 결합할 때, 즉 선진이 하화하고 후진이 상구할 때에만 교육적 관계의 기본도식이 성립된다. 만약 선진이 상구하거나, 후진이 하화한다면, 교육적 관계는 성립되지 못한다(장상호, 2009a: 138-140).



## 2) 교육적 관계의 시간적 전개양태

### (1) 교육적 관계의 성립

교육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삼자가 강제로 맺어주거나 세속적인 기준에 이끌려 맺어질 수 없다(장상호, 2009a: 144-145). 교육적 관계는 오직 하화하려는 선진과 상구하려는 후진이 적절한 상대를 찾아 힘을 합칠 때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교육적 관계의 성립 조건은 크게 세 가지이다(장상호, 1991). 첫째, 선진과 후진의 품위 차이에 대한 잠정적 우열을 가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선진은 후진을 알아보는 고압제를 자제해야 하고, 후진 또한 선진을 깔보는 저압제를 억제함으로써 각기 하화와 상구의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선진은 후진에게 청학(請學)하고 후진은 선진에게 청교(請教)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교육적 요청을 조건부로 수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승과 제자의 교육적 관계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순조롭게 만족될 경우에 성립될 수 있다. 정연희(2000)와 최성욱과 신기현(2000)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불교 아함경과 판소리의 전승역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진보다 품위가 낮은 후진이 선진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품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우열을 우회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간단한 문답, 시험, 소문에 의거해서 우열을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이밖에, 상대와의 시험을 통해서 그 품위 수준을 가설적인 수준에서 헤아려 볼 수 있다(최성욱, 신기현, 2000).

그런데 선진과 후진의 품위 차이를 잠정 확인한 것만으로 교육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적 관계를 맺는 데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다. 그것은 바로 선진의 고압제와 후진의 저압제이다. 교육적 관계는 선진이 수도계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치로 후진을 억압하지 않고 후진이 선진을 냉소하지 않음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교육의 한 축으로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장상호, 1991). 고압제와 저압제는 자신의 현재 품위를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접어둔다는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선진이 자발적으로 하화의 자세를 취하고 후진이 적극적으로 상구의 태세를 갖추지 않고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

한편, 아무리 많은 선진과 후진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청하고 가르침을 청하지 않는 이상 관계는 시작될 수 없다. 교육적 관계란 상구태와 하화태가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이루어질 때만 가능한 관계이다. 이것은 마치 손 하나만으로 박수를 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이 스스로 배움을 청하고 선진이 가르침을 청해야만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상대의 요청이 있을 때 각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쌍방이 흔쾌히 수락함에 의해서 비로소 교육적 관계

5) 선진과 후진은 본인의 수준에서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선진은 후진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선진이 후진에게 강압적으로 자신의 품위를 강요하는 것을 고압제, 후진이 선진의 품위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저압제라고 한다(장상호, 1991).

가 시작된다.

이렇듯 교육적 관계는 선진으로 추정되는 스승과 후진으로 보이는 제자가 각자 하화와 상구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상대에게 내비치면서 그에 대해 조건부적인 신뢰를 보임으로써 서로를 교육의 파트너로 수락하고 인정할 때에 성립하는 매우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다.

## (2) 교육적 관계의 유지

교육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 내재율이 준수되어야 한다(장상호, 1991, 2009a). 첫째, 사제동행이다. 스승과 제자가 동일 수도계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 스승은 의술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제자가 그림에 관심을 기울이면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같은 수도계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다른 것을 배제하는 태도의 유지가 중요하다.

둘째, 스승과 제자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스승은 제자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어중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즉, 스승과 제자 사이에 반신반의, 알쏭달쏭함, 아이러니, 패러독스, 갈등의 지속이 필요하다(장상호, 1991).

셋째, 제자의 상구와 스승의 하화 사이의 보조맞춤 역시 중요한 조건이다. 상구와 하화는 이인삼각 경기와 같다. 혼자 너무 빨리 달려도, 늦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둘이 함께 속도를 맞춰야만 원만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넷째, 제자와 스승이 각기 상구와 하화에 온전히 몰입함으로써 상호 협동적인 관계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이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품위를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상호촉진적인 체험 형성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가 그 본업에 충실하여 각자의 길에 전념할 때 비로소 최적의 환경이 되는 것을 뜻한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파트너가 되는 기본은 서로 흐트러짐 없이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잉여적으로 상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동적인 공조 관계를 구축함에 의해서 스승과 제자는 품위 차이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데 필요한 체험을 생성할 수 있다.

제자와 스승의 품위에는 큰 간격이 있다. 이 때문에 품차가 해소될 때까지 교육적 관계의 내재율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의 내재율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속의 유희와 품위 경쟁의 욕구가 끊임없이 교육적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적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 중 하나가 세속적 목적이나 수도의 목적으로 돌아서면 그 관계는 즉시 무너져 버린다(장상호, 2009a: 74).

## (3) 교육적 관계의 종결

교육적 관계가 종결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육적 관계의 기본 가정이 잘못된 경우, 스승과 제자 사이의 품위가 사라진 경우, 교육적 관계의 내재율을 이탈한 경우가 그것이다.

첫째, 교육적 관계의 기본 가정이 잘못된 경우는 품위의 우열에 대한 가정이 잘못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선진이라고 보이는 이를 스승으로, 후진으로 보이는 이를 제자로 하여 교육적 관계를 맺었는데, 교육의 과정 속에서 그 둘의 품위에 차이가 없거나 혹은 반대였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다. 이 경우는 관계를 종결하거나 스승과 제자의 역할을 바꿔 교육적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한다(장상호, 2009a: 157-158). 또 다른 경우는 상구와 하화를 충실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이다. 교육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구와 하화에 대한 각자의 몰입이다. 스승은 충실히 하화해야 하고 제자는 충실히 상구해야 한다. 선진과 후진이 서로 맡은 바 본무에 성실할 것이라 가정하고 관계를 맺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관계는 종결을 맞이한다(장상호, 2009a: 159).

둘째, 스승과 제자 사이의 품위가 해소된 경우 또는 제자의 품위가 스승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에도 교육적 관계는 종결된다. 이 때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더 이상 상구할 수 없으므로 교육적 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당연하다(장상호, 2009a: 159).

셋째, 교육적 관계가 그 내재율에서 이탈하는 경우, 그 관계는 중도에 종결된다(장상호, 2009a: 156). 예를 들면, 교육 자체보다 외재적인 소재에 관심을 가질 때, 둘의 관계는 세속적 관계나 수도적 관계로 변질된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논리가 전면에 부각됨으로써 교육적 관계가 세속적 관계로 전화하여 단절되는 것을 말한다.

#### IV. 소설 『동의보감』에서 교육적 관계의 전개양태

이 장에서는 <유의태-허준>, <유의태-유도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관계 형성, 유지, 종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유의태-허준>의 교육적 관계

###### 1) 교육적 관계의 형성

###### (1) 선진과 후진에 대한 잠정적 우열의 가정

허준과 유의태의 첫 만남은 허준의 어머니가 유의태 의원을 찾아가면서 이루어진다(상:116)<sup>6)</sup>. 허준은 그 전에 유의태의 진료 과정을 볼 기회가 있었다. 당시 허준의 눈에 유의태의 모습은 의술에

6) 상중하 3권으로 된 소설 『동의보감』의 원문을 인용할 때에는 (권수:쪽수)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직접 인용한 경우에는 「…」로 나타낸 뒤에 (권수:쪽수)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중권 16쪽의 내용을 인용한 때는 인용문 뒤에 (중:16)의 형태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매우 조예가 깊고 신묘한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비쳤다. 동시에 환자를 차별하지 않고 금전적 이득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의원으로 보였다.

허준과 유의태가 첫 만남부터 교육적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었다. 실상 허준은 가늠하기 어려운 의술의 경지를 드러낸 유의태에게 오히려 강하게 반발한다. 허준은 「왜 자신이 유의태에게 반감을 느꼈는지 알 수 없었다.」(상:118)고 표현한다. 자신의 생각을 기준삼아 감히 우러러 보기 힘들 만큼 높은 품위를 지닌 유의태에게 근거 없는 질시와 반감을 보인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허준은 사냥꾼과 약초꾼을 권하는 구일서(변돌석)와의 대화에서 불현듯 유의태를 떠올린다. 허준은 유의태를 가리켜 「그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본 하나의 완성된 인간의 모습」(상:121)이라고 표현한다. 이를 보면, 허준은 은연중에 유의태의 의술과 인품에 매료되어 스스로 평가를 반복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다가 허준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난다. 허준은 어머니가 단지 뱃멀미로 속이 꼬인 데 불과함을 간파하지 못한다(상:117). 그런데 유의태는 한 눈에 허준 어머니의 상태를 꿰뚫어 본다. 이를 통해 허준은 유의태의 의술이 범인이 미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있음을 더욱 인정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의태에 대한 허준의 생각과 태도 변화이다. 한 동안은 유의태의 품위에 대해 막연히 짐작만 할 뿐, 그의 우월함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는 중에 마음 한 켠에 그 신묘막측한 의술의 경지에 호기심과 동경심을 품게 되고, 자기도 그런 의술을 터득해 보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열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것이 처음에 문외한으로서 가졌던 저압제(低壓制)를 억누르고 겸허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청하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하화태와 상구태의 발현

유의태는 약초꾼을 하라고 지시할 때처럼 허준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허준에 대한 일종의 시험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허준의 끈기를 시험하고, 자만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태도와 마음가짐은 활자로 인쇄된 책으로 배우기엔 한계가 있는 것들이다. 태도와 마음가짐 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선진은 후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하거나 기괴한 행동이나 말을 보일 때가 있다. 이에 대해 후진은 경악과 멸시, 분노와 야유를 선진에게 표출하는 등 즉각 반발할 때가 많다. 그렇게 될 경우, 선진에게 청교할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은 후진이 자신의 선입견이나 기준을 괄호치고 스스로 자세를 겸손하게 낮추어 상구의 자세를 보이는지 예의주시하게 된다. 그런 적극적인 불신의 유보가 없이는 제자가 되기 위한 관문을 결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의태 역시 허준에게 약초꾼 일과 약재창고 일을 맡기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관찰함으로써 허준에게 그러한 제자다운 상구의 의지가 확고한지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이에 허준은 유의태의 태도에 조바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스승의 지시를 기다리며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점에서 허준은 저압제를 극복하고 상구자로서의 자세를 스스로 갖추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구자로서의 겸비함은 유의태가 물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접한 허준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자존심과 옹졸함에 갇혀 「유의태에게 느끼고 있었던 그 오만과 도도함에 대한 저항이 눈처럼 녹고 있었다.」(상:150)고 허준 스스로가 자기 한계를 깨닫고 저압제를 내려놓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반면, 유의태가 고압제(高壓制)를 극복하고 하화의 자세를 갖추어가는 모습은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허준이 상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때 허준의 부족함에 대해 무시와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하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통해 그가 고압제를 극복하였다는 짐작은 가능하다. 허준이 물의 종류에 대해 질문하는데(상:149), 이 질문은 유의태 입장에서 보면 매우 쉬운 질문이다. 그럼에도 유의태는 허준의 무식함을 타박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상세히 물에 대해 설명해준다. 이러한 예는 유의태 역시 고압제를 극복하고 하화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교육적 요청과 조건부 수락

그 뒤, 허준은 유의태의 제자가 되고자 가르침을 청한다. 유의태는 일단 그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인다. 당시 허준의 목적이 오직 의술에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처음 임시변통의 생업으로 택했던 의원의 세계로 자신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빠져들어」(상:171) 갔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내심 목적은 생업에 있으나 점차 의술이라는 수도계에 매료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유의태는 허준과의 첫 만남부터 허준을 예의주시한다. 의술에 대한 허준의 잠재적 가능성을 간파한다. 그러나 정작 허준이 자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타났을 때는 시큰둥하니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유의태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일부러 꾸민 것이었다. 그 이유는 허준이 제자로서 확실한 태도의 전환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시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허준이 과연 의술에 대한 진지한 열의와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허준이 제자로서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유의태의 테스트는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허준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약초꾼의 일을 시킨다. 「약을 짓는 정성을 배우라.」(상:147)는 의미와 동시에 제자로 받아들일 만한 그릇인지를 시험해 보는 과정이었다. 이어, 유의태는 두 번째 과제로 허준에게 약제창고를 맡긴다. 이 시험을 부과함으로써 유의태는 허준을 자신의 진정한 제자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가늠함과 동시에 의술이라는 수도계에 좀 더 깊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번의 테스트를 통하여 유의태는 허준의 청교(請敎)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를 얻고자 하였다.

교육적 관계가 성립하려면 선진과 후진의 우열을 잠정적으로 가정하고, 고압제와 저압제 대신에 하화와 상구의 태세를 확립하며, 상구와 하화를 구하는 상대의 요청을 조건부로 수락하는 과정을

차례로 만족시켜야 한다. 허준과 유의태는 후진의 저압제와 선진의 고압제라는 내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상대에게 하화와 상구를 청하였고, 상대의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마침내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맺게 된다. 그 흐름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유의태는 우선 약초 캐기를 통해 제자로서 허준의 가능성을 짚어보았고, 그 후 약제창고를 맡겨 그의 마음가짐을 살피는 순서를 밟았다. 허준 또한 유의태를 스승으로 맞이하기에 앞서 그의 태도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상대의 본심을 까다롭게 점검한 뒤에 비로소 스승과 제자라는 교육적 파트너로 받아들인 이들의 모습은 교육적 관계의 성립 조건이 단순하지 않음을 예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교육적 관계의 유지

### (1) 사제동행

유의태의 관심은 자신의 의술을 이어갈 제자양성에 있었다. 품위를 손실 없이 물려주고 자신이 이룩한 의술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단지 결과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의 과정을 철저히 되밟을 제자가 필요했다. 이러한 재창조의 의도를 품었기에 면천에 대한 허준의 뿌리 깊은 집착을 불식하려고 시종 공을 들였다.

허준은 허준대로 면천에 대한 유혹은 물론 부귀와 공명을 바라는 일체의 세속계적 유혹과 치열하게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유혹에 휩싸여 방황하고 갈등할 때, 스승 유의태의 고고한 품위에 매료되어 것처럼 되고 싶다(상:380)는 열망은 허준이 끊임없이 상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준은 종종 내의원 취재를 통한 신분상승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곤 했다. 제자가 이러한 조짐을 보일 때마다 스승은 오직 의술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호된 일침을 날린다.

어느 날, 허준은 창녕 성대감 댁에 진료를 다녀오면서 병인을 낫게 해 준 댓가로 성대감이 써준 한 장의 소개장을 받아온다(상:348). 소개장은 허준이 꿈에도 그리는 내의원 취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여겼던 때문이다. 이를 본 유의태는 허준이 받아온 소개장을 눈앞에서 태워버리도록 하명한다(상:367). 사사로운 인정으로 의원의 자격을 얻으려고 한 제자를 추상같이 꾸짖은 것이다. 유의태에게 중요한 것은 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위이다. 이 품위는 지식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태도와 마음가짐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제자가 그런 의원의 마음을 건어차고 알팍한 잔피로 의원의 지위를 넘보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일로 허준과 유의태의 교육적 관계는 단절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 (2) 스승과 제자의 적정 거리 유지

허준에게 있어서 유의태는 이해할 수 있을 듯하나, 여전히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느낌을 주

는 존재이다. 허준에게 제시하는 과제 역시 시종 알 듯 모를 듯하다. 게다가 답을 물어보아도 알려주지 않는다. 결국 허준은 유의태가 던진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된다.

허준이 약재창고를 맡게 된 날, 장쇠 일행은 서열을 무시한 결정에 불복하여 반발한다(상:147). 유의태는 장쇠 일행에게 정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서른세 가지 물의 종류에 대해 아는지 물어본다. 장쇠 일행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옆에 있던 허준은 물이 서른세 가지나 된다는 사실에 적이 놀란다(상:148). 허준은 스승과의 엄청난 격차를 또 한 번 실감하게 된다.

허준이 「『서른세 가지 물은 의원이 직접 맛을 판별하옵니까, 그 모두 이름이 따로 있습니까?』(상:149)라며 유의태에게 물에 대한 가르침을 청하자, 유의태는 막힘없이 물의 종류에 대해 알려준다. 유의태의 설명을 들으면서 「허준의 가슴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아니 그건 전율과 같은 감동이었다. … 유의태의 존재가 허준의 눈에 이제는 태산처럼 비치고 있었다.」(상:150) ‘태산’은 유의태에게 느끼는 신비와 경외감을 의미한다. 허준은 이러한 동경심을 품음으로써 더욱 상구에 전념할 열망을 불태우게 된다.

어느 날 유의태는 허준이 치료해주었던 소갈병(당뇨) 환자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다(상:242). 질문은 소갈병의 오줌이 단 이유로 시작하여, 소갈병의 원인, 각기병과 소갈병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 소갈병의 치료 방법을 거쳐 소갈병의 세 가지 금기로 점차 수준을 높여갔다. 「허준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짜냈다.」(상:243), 「유의태의 표정에는 가타부타 변화가 없었고 허준의 이마에는 진땀이 번쩍이고 있었다.」(상:245) 허준은 질문의 수준을 끝까지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스승 유의태의 진의에 가까워진 듯하다가 다시금 멀어지는 좌절을 맛보았다. 이날의 일로 허준은 스승과의 차이를 알기 위해 더욱 상구에 몰두하는 집념어린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 (3) 상구와 하화 사이의 보조맞춤

유의태는 허준에 대한 다양한 행동 제제를 통해 그와의 호흡을 맞추고 속도를 조절했다. 같은 행동에 대해 어떤 때는 불같이 화를 내고 어떤 때에는 별 말 없이 지나간다. 어느 날 허준이 유도지의 방에서 우연치 않게 얻게 된 약방문을 필사(筆寫)하고 외우는 연습을 한다(상:179). 이를 본 유의태는 그를 크게 나무란다. 유의태가 허준의 성급함을 꾸짖는 이유는 허준의 수준에 맞는 수행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의 실력이 늘면서 스승의 반응도 달라진다. 허준이 침경에 대해 말할 때, 유의태는 침경의 한계에 대해 여러 조언을 해 준다. 이때 제자가 침경을 훑쳐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이 단지 서책의 한계에 대해서만 지적해 준다. 오히려 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힘주어 강조했다. 행여 잘못된 태도를 갖지 않도록 제자의 조급함을 저지하려고 한 것이었다.

환자를 돌보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성급하게 환자를 돌보게 하는 것이 체형의 연성(鍊成)을 부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신참내기에 불과한 허준이 몰래 환자를 보다 들

킨다(상:241). 호된 꾸지람이 떨어져야 했지만, 이 날 스승은 예상 밖으로 전혀 꾸짖지 않고 오히려 적어놓은 처방전을 확인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기까지 했다.

이런 유의태의 태도는 얼핏 납득이 안 가는데다 이중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유의태의 관심은 제자의 상구를 돕기 위해 시의적절한 가르침을 주는 데 있었다. 즉, 제자의 성장속도에 맞게 하화의 속도를 조절하였던 것이다. 이는 그가 제자와의 긴밀한 보조맞춤을 통해서 교육적 시숙(時熟)을 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허준을 창녕으로 진료 보낸 것 역시 적기(適期)를 맞추려는 보조맞춤에 의거한 행동이다. 견습생에 불과한 허준에게 중풍환자를 맡긴 것은 일견 무모한 처사로 보인다. 그렇지만 유의태에게는 이미 허준이 중풍환자를 치료할 정도의 상당한 실력에 올라섰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의 수준에 적절한 체험을 쌓을 기회라고 판단하였기에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스승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허준은 중풍환자를 완치시키고 돌아왔다(상:336).

#### (4) 상구와 하화에의 몰입을 통한 상호촉진적 협동

유의태는 허준에게 의원의 바른 마음가짐과 함께 환자의 상태와 치료 당시의 상황 등 치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까지 모두 아우르는 높은 안목을 강조한다. 이러한 능력은 단지 책을 읽는 것으로 터득할 수 없기에 제자의 충실한 상구체험을 촉진하는 협력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런 노력의 하나로 허준에게 일정한 과제를 제시하고 그 뒤로 크게 관여하지 않는 달라진 하화방식을 구사한다. 허준에게 약재창고를 맡긴 뒤 일체 관여하지 않고 무심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반면에 유도지의 방에서 병부를 얻어 필사하고 외우다가 들킨 허준을 꾸중하고 질책하는 것도 상구를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하화 전략의 하나였다. 유의태는 꾸중과 질책을 통하여 허준이 상구하는 방향을 수정해주고 상구체험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허준이 침경을 곧이곧대로 모든 병자에게 쓰려고 하자, 허준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침경을 지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며 기후도 음식도 다른 나라 사람을 다룬 걸 안다면 책장에 쓰인 것이 곧 금과옥조란 보장도 없다.”(상:216) 허준의 가슴속에 신선한 충격이 와 닿았고 눈이 뜨였다. 스승은 제자가 침술에 대한 고정관념의 한계를 깨고 나오도록 정문 일침의 훈도를 베풀어준 것이다. 마침내 허준은 스승의 뜻을 깨닫고 책에 대한 집착을 흔연히 버릴 수 있게 된다.

스승으로서 제자의 상구 체험을 촉진하기 위한 하화적 열정의 절정은 자신의 몸을 해부용으로 제공하는 장면에서 절정에 이른다(중:257). 불치의 반위(위압)를 앓고 있던 스승은 허준을 불러 진맥하게 한다. 허준이 주저하자, 「장차에 대비하여 흔치 않은 경험」(중:258)이라 말하며 독려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나아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바로 그런 일이 아니리. 더구나 의원으로서 사람의 오장과 육부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욕망이기 전에 당연히 거쳐봐야 할 공부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주업으로 삼으면서 사람의 속이 어찌 생겼는가를 모른다면 깊은 신은 채 발바닥을 굽어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중:623) 스승의 깊은 의도를 이해한 허준은 마침내 거부감을 극복하고 당신의 몸을 해부한다. 이렇게 의업의 진보라는 사명을 짊어진 제자의 상구를 위해 자신의 몸까지 불사한 하화의 실천 의지는 제자의 상구를 더욱 촉발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유의태가 구사한 무심한 척 가장하기, 꾸중하고 질책하기, 고정관념 타파하기는 허준이 의술연마에 더욱 몰입하는 스승의 계기를 조성하였다. 허준도 다양한 스승의 하화전략에 호응함으로써 양자는 활발한 상호촉진적 협동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

### 3) 교육적 관계의 종결

허준이 눈 먼 환자를 고친 뒤 의원은 허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중:255). 그는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긴 스승의 안배를 잊지 않고 불철주야 상구에 매진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스승 유의태는 말기에 가까운 반위를 앓고 있었고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몸을 허준이 진맥하도록 했다. 이것은 자신의 해부를 맡겨도 될 정도의 품위에 허준이 올라섰다는 의미이다. “내 몸 속에 자라기 시작한 이놈의 정체를 기어코 또 내 손으로 밝혀 보려 한 적도 있었으나 그건 내 욕심일 뿐. 그 소임을 맡을 자는 아마도 너희들이려니.”(중:261) 허준이 자신에 버금가는 실력을 갖추었으니 그에게 훗날을 맡긴다는 것이었다.

유의태의 죽음은 허준과 유의태의 교육적 관계를 종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허준이 아직 상구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유의태의 죽음에 의해 둘의 관계는 종결된다. 그런데 유의태가 죽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의 교육적인 관계는 그리 오래 지속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교육적 관계의 기본 전제는 품위의 차이인데, 그것이 거의 소멸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한들 그것은 진정한 교육적 관계이기보다는 동료관계이거나 예우적인 관계에 불과할 것이다. 허준과 유의태의 관계가 종결된 것은 정황상 유의태의 죽음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동질화됨으로써 더 이상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 2. <유의태-유도지>의 교육적 관계

### 1) 교육적 관계의 형성

<유의태-유도지>간에 교육적 관계가 어떤 경로와 절차로 형성되었는지는 소설 『동의보감』에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적 관계의 성립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관계는 순조롭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되며, 그 단서가 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소설에서 추적해 볼 수 있다.

### (1) 선진과 후진의 잠정적 우열 설정의 미흡

〈유의태-유도지〉는 파를 나는 부자지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혈연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 실상 소설 내내 유의태는 유도지가 제자로서 부족함을 지적한다. 유도지를 가리켜 「자식이 제법 재주는 있네, 충기도 있고, 하나 심지가 모자라. … 내가 바라는 그릇이 아니야. 그리고 그건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상:281)이라고 평하는 부분이 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로서 유의태는 유도지를 오래 전부터 지켜보았을 것이고, 의술이라는 수도계에서 유도지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시험해 보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아들 유도지가 제자로서는 부족함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 데에는 혈연관계의 영향이 컸다. 말하자면, 혈연으로 시작한 관계가 언젠가는 사제지간으로 승화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품었기에 일단 사제관계를 맺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상구태와 하화태의 발현을 저해하는 고압제와 저압제

아들인 유도지도 자신을 제자로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스승 유의태와의 관계에 불만을 갖는다. 유의태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며, 비방(秘方)을 아들인 자신에게조차 알려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한다. 또, 유의태의 지도방식이 특별한 존재인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여기며 유의태의 지도를 함부로 거부한다. 이러한 태도는 제자다음과 거리가 먼 일종의 저압제로 볼 수 있다.

유의태도 유도지에 대한 고압제를 완전히 극복하였다고 보기엔 어렵다. 스승으로서 냉정하게 처신해야 하는 장면에서 아버지로서의 감정과 온정에 의존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김민세와 함께 유도지를 평하는 부분에서 유의태는 아들 유도지가 의원의 재목으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삼아 그에게 의술을 전술하고 있음을 밝힌다(상:281). 교육적 관계 형성의 외적 요인에 불과한 생물학적 친자관계를 배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 (3) 교육적 요청과 조건부 수락의 생략

유의태와 유도지는 스승과 제자가 되어 달라고 상대에게 요청하지 않았지만, 친자관계의 연장선 상에서 '유사교육적 관계'를 형성했다. 이는 적극적, 자발적, 능동적 의지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적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그들은 교육적 관계로서는 애초부터 취약한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유의태-유도지〉의 관계는 생물학적 관계와 세속적 목적이 개입함으로써 교육적 관계의 형성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에서 맺어졌다. 선진인 유의태와 후진인 유도지 간에 품위를 정직하게 노출하고 식별하는 절차를 밟았는지부터 의문이다. 의원으로서의 소질과 가능성이 부족한

유도지가 단지 생물학적인 이유에서 제자로 받아들여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스승과 제자로서 확고하게 태도를 전환하지도 못하였다. 제자의 도리를 다해야 할 유도지는 스승인 유의태에 내심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유의태 또한 친부로서 엄격한 선을 굽지 못함으로 인해 제자의 상구를 이끄는 하화자의 자세를 온전한 형태로 갖추지 못하였다.

## 2) 교육적 관계의 유지

### (1) 사제동행의 난관과 애로

유의태와 유도지는 의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그 동기는 서로 상충된다. 유의태가 의술을 온전히 수도적인 자세로 대하는 데 비해, 유도지는 의술을 단지 세속적인 수단으로 여긴다. 유도지의 세속적 태도는 아버지 유의태가 가난한 환자들에게 돈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어느 날, 유도지는 내의원 취재를 보러가는 길에서 환자들을 마주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그들을 버려두고 시험장으로 향한다(중:93). 유의태는 이런 유도지의 빛나간 관심을 돌리기 위해 노력한다.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의원의 마땅한 마음가짐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팔의론(八醫論)에 대한 언급도 그 하나이다(상:159). 유의태의 애타는 노력은 유도지가 내의원 취재에 붙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그러나 유도지는 그 뜻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적정 거리 소멸

유도지는 자기 실력을 과신하여 내의원 취재에 단번에 붙을 것으로 여긴다(상:171). 그런 자만심은 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자세와 거리가 먼 것이고 스승인 유의태와 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데에도 큰 장애가 된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적정한 거리는 교육적 관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건의 하나이다. 그런데 〈유의태-유도지〉 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긴장된 거리가 시종 유지되지 못했다. 유도지의 관심이 온통 내의원 취재에 쏠린 탓이다. 유의태는 이런 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것마저 외면해 버리는 유도지로 인해 모든 노력이 무위에 그치고 만다.

### (3) 상구와 하화 사이의 보조맞춤 난조

유의태가 보기에 유도지는 어디로 보아도 아직 의원으로 나설 ‘때’가 되지 않았다. 「한 개의 과일도 때가 되어야 익는 법」(중:172)이라는 말은 그가 허준과 유도지에게 항상 하던 말이다. 그러나 유도지의 입장에서 그 말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비쳤다. 「“이제야 대사님(김민세)을 불러온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 양반을 불러와서 저의 한양행을 단념케 하고자.”(상:169) 그에게는 항상 유의태를 향한 불만이 가득하였다.

유의태와 유도지는 상대의 기운과 속도에 맞추는 보조맞춤이 원활치 않았다. 유의태가 보기에 유도지는 내의원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나 유도지는 자신에게 향하는 그런 불신과 낮은 평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유도지는 마침내 유의태에 반기를 들고 만다. 이렇게 보조맞춤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가 되자, 유의태도 제자를 더 이상 제어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

#### (4) 상구와 하화의 불충실로 인한 상호 협력관계의 와해

의원수업을 쌓는 동안에 유의태는 유도지에게 여러 유형의 환자를 돌보게 하였다. 자신이 환자를 볼 때 옆에서 그 치료 과정을 관찰하도록 하고, 환자의 정도에 따라 유도지에게 맡기기도 했다. 자신이 의원을 비웠을 때는 유도지에게 잠시 의원을 맡기기도 한다(상:209). 이는 환자를 치료하는 경험보다는 유도지의 비뚤어진 마음가짐을 바로잡아보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럼에도 유도지가 내의원 취재에 대한 욕심을 한사코 버리지 못하자, 유의태는 엄한 훈계와 질책을 내린다. 그러나 유도지의 반항으로 이마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어느 날, 유도지는 유의태에게 당돌하게 요구한다. 「아버지가 감춰놓은 비방을 돌려주십시오.」(중:181) 유의태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자가 어찌 비방을 얻을 수 있단 말이나? 스스로 체험하지 않고서야 무엇이 비방이 될지 어찌 미리 알더란 말이나! 세상의 어떤 병도 고치려는 욕심이 없는 자가! 세상 누구의 병이라도 고치겠다는 맹세가 없는 자가 어찌 어디에 누구에게 쓴 비방을 알 수가 있단 말이나!”(중:182)라고 엄중히 꾸짖는다. 스스로 힘써 상구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비방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아들을 조금이라도 일깨워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극도의 반감을 품은 유도지에게는 그런 간곡한 호소마저 통하지 않았다. 이로써 유도지에게 공들인 유의태의 하화는 허망하게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 3) 교육적 관계의 종결: 교육적 관계의 내재율 이탈

소설 『동의보감』 속에 흐르는 가장 두드러진 세속적 야망은 내의원 취재이다. 내의원 취재는 시시때때로 <유의태-유도지>의 교육적 관계를 위협하고 마침내는 그 관계를 파경으로 내몰아 간다.

유도지에게 내의원 취재란 출세나 영달(榮達)의 상징이었다. 내의원 취재를 보러 가기 위해 환자를 버리고 간 데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도지에게 의원이란 가업승계와 신분상승의 표적에 해당했다. 또, 내의원 취재는 스승 유의태에게 의원으로 당당히 인정받는 해결책이기도 했다. 그러나 유의태는 내의원 합격 소식을 듣고서도 아들 유도지에게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에 유도지는 분노에 가득차고 스승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는 반항을 표출하게 된다.

유의태는 유도지가 의술에 매진하기보다 출세의 야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채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줄곧 노력했다. 유도지가 버드내에서 환자를 버려둔 차 내의원 취재를 보러 갔던 일과, 그 시험에서 합격하여 돌아왔다는 것을 안 뒤에도 유의태는 내의원 합격을 명예로만 알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한다(중:183). 의원의 명분을 잊은 유도지를 바로잡고자 하는 유의태의 의도는 교육의 내재율에서 이탈하려는 제자를 붙잡아 보려는 것이었다. 유의태가 보기에 유도지는 결코 만족스러운 제자가 못된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그와의 교육적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유도지는 스승의 이런 의도를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고리타분한 자세로만 받아들인다. 결국 <유의태-유도지> 관계는 지속된 오해와 불신의 증폭으로 인해 파국에 이른다.

## V. 논의 및 결론

소설 『동의보감』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는 세속적 관계, 수도적 관계, 교육적 관계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등장인물의 관계는 다원적이기 때문에 동일 인물과의 관계라도 각기 다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스승과 제자 사이의 교육적 관계로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계로는 <유의태-허준>과 <유의태-유도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교육적 관계로 분류하고, 관계의 형성, 유지, 종결의 세 단계로 나누어 그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유의태-허준>의 경우는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비교적 충실하게 충족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둘의 관계는 허준이 신분상승에 목적을 두고 내의원 취재에 집착하는 동안 관계의 내재율에서 벗어나곤 했다. 그러나 허준이 세속적 태도를 접고 상구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으로써 다시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된다. 이처럼 굴곡과 위기를 겪으며 지속되던 관계는 이윽고 허준이 유의태와 등당한 수준에 올라서면서 종결을 맞는다.

반면에, <유의태-유도지>는 혈연관계를 배경으로 한 탓에 외형적으로 교육적 관계를 맺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라는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스승으로서 단호해야 할 순간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등 온전한 교육적 관계를 지속하지 못한다. 유도지 또한 가업을 세습하려는 동기에서 내의원 취재 합격에 집착함으로써 교육적 관계의 내재율에서 시종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소설 『동의보감』에 나타난 관계 분석을 통하여 의술이라는 하나의 소재를 두고 두 자연인 간에 교육적 관계를 이루는 데에 필요한 기본 요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비추어서 교육적 관계의 전개양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관계를 맺는 소재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맺는 등장인물의 태도가 관계의 양상과 질을 결정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 목적과 상호협력의 양태에 따라서 등장인물의 관계는 언제든지 단절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은 소설 『동의보감』에서 볼 수 있는 교육적 관계가 우리 민족의 오랜 교육전통 속에서 암암리에 그 맥을 계승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소설 『동의보감』에는 한 스승과 두 제자 사이의 상반된 교육적 관계가 극적으로 대비되어 나타난다. 허준은 스승 유의태의 하화에 충실히 따르며 품위의 상승에 성공하지만, 유도지는 스승에게 반발하여 관계의 파탄으로 치닫고 품위의 변모에도 실패한다. 이렇게 한 스승과 두 제자가 교육적 관계의 충실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말에 이르는 모티프는 <단군신화>와 <부득(不得)과 박박(朴朴) 설화>를 사실상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곰과 호랑이과 맺은 교육적 관계가 성공과 실패로 엇갈려 대비되고, <부득(不得)과 박박(朴朴) 설화>에서는 두 사람의 수행자가 처녀로 변신하여 찾아온 보살과 맺은 교육적 관계가 극명한 성패의 결말을 보여준다. 그런 교육적 관계의 전형을 따르는 소설 『동의보감』은 민족 고유의 교육적 계보를 잇는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교육사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동의보감』에 나타난 교육적 관계는 또한 교사-학생 관계와 부모-자녀 관계가 교육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도 일말의 시사를 던져준다. 소설 『동의보감』에서 스승 유의태는 교육적 관계를 이탈하려고 하는 허준과 유도지에게 각기 다른 방식의 하화를 시도한다. 유도지와 의 교육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만 이유는 친자관계의 간섭과 개입을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라 할지라도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만 정상적인 교육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허준과의 교육적 관계에서 스승인 유의태가 보여준 하화의 방식은 제자가 교육적 관계의 와해를 가져올 만큼 교육의 내재율에 충실하지 못한 위기상황에서 스승이 지켜야 할 냉정함과 신뢰감을 곳곳이 유지하는 길만이 교육적 관계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교육적 관계의 내재율에서 이탈하는 학생을 교육적 관계로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유익한 시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설 『동의보감』에 나타난 교육적 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교육적 관계가 가지는 제반 특성이 모두 드러난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소설이라는 장르에 국한한 본 연구의 결과는 극히 제한적인 의미와 시사점을 가질 뿐이다. 소설 외에, 신화, 전설, 민담 등 다양한 서사장르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적 관계를 분석·비교한다면 좀 더 타당하고 풍부한 내용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가정, 직장, 가상공간 등 다양한 삶의 공간에서 교육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에 약간의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바라기는, 다양한 관심과 주제를 통해 교육적 관계의 전모가 좀 더 온전하고 풍부한 모습으로 밝혀질 수 있도록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숙희(2010). 학습자 중심의 소설 교수-학습 방안 연구: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김유리(2017). 궁중음식을 소재로 한 도제식 활동의 특징 고찰.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재웅(2014). 교육봉사활동에 들어있는 “교육” 용어의 해체와 과제. **교육원리연구**, 9(2), 1-25.
- 김지현(2015). ‘고등교육’ 용어의 비판적 해체와 교육학의 과제. **교육원리연구**, 20(2), 87-122.
- 백진주(2017). 가야금 산조의 전승 과정에 나타난 교육적 관계의 양태 고찰.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엄태동(1990). 『갈매기의 꿈』에 나타난 가르침과 배움의 구조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유영태(2001). **현대소설론**. 서울: 국학자료원.
- 이경승(2004). 소설 교육과 도덕성: 『소설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기연(2008). 해석학적 순환에 대하여. **불어불문학연구**, 74, 273-318.
- 이상우(2002).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 서울: 집문당.
- 이시영(2005). 소태산의 교육적 삶과 메타교육활동. **교육원리연구**, 10(1), 63-91.
- 이은성(2012). **소설 동의보감(상, 중, 하)**. 경기도: 마로니에북스.
- 이이화(1992). 소설 『동의보감』은 역사를 옳게 봤는가? **역사비평**, 19, 261-268.
- 장상호(1986). 교육학의 비본질성. **교육이론**, 1(1), 5-53.
- 장상호(1990). 교육의 정체혼미와 교육학의 과제. **교육이론**, 5(1), 21-64.
- 장상호(1991). 교육학 탐구영역의 재개념화. **교육학연구**, 91-2.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 장상호(1994). 또 하나의 교육관. 이성진 (편). **한국교육학의 맥**, 291-326. 서울: 나남출판.
- 장상호(1997). **학문과 교육(상): 학문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상호(2001). 교육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략. **교육원리연구**, 6(1), 1-35.
- 장상호(2003). 교육발전의 도해. **교육원리연구**, 8(1), 77-124.
- 장상호(2005). **학문과 교육(중): 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상호(2007). 교육에 대한 개념과 어휘의 해체. **교육원리연구**, 12(1), 31-64.
- 장상호(2009a). **학문과 교육(중 II): 교육본위의 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장상호(2009b). **학문과 교육(중III): 교육연구의 새 지평**.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연희(2000). 아함경에 나타난 교육적 관계의 전개 양상.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성욱(2003). 교육비 개념의 타당성 검토. **교육원리연구**, 8(1), 125-142.
- 최성욱(2004). 교사-학생 관계의 비판적 고찰. **교육원리연구**, 9(1), 1-45.
- 최성욱, 신기현(2000). 판소리 전승사에 나타난 도제교육의 양상과 원리. **교육원리연구**, 5(1), 215-256.
- 최우석(2006). 교육의 발견: <매트릭스>는 교육영화다. **교육원리연구**, 11(2), 31-73.
- 한수연(2013). '입시교육'과 '창의성교육' 용어의 해체와 재건. **교육원리연구**, 18(2), 27-60.
- 한수연(2015). 과학교육론의 정립을 위한 '과학교육학' 용어 해체의 필요성과 과제. **교육원리연구**, 20(1), 1-25.
- 홍원식(1991). 한의사가 읽어 본 소설 『동의보감』의 문제. **출판저널**, 89, 20.
- Goodman, P. (1964). *Compulsory mis-education and the community of scholars*. New York: Vintage Books.
- Reimer, E. (1981). *School is dead*. 김석원 (역)(1982). **학교는 죽었다**. 서울: 한마당
- Palmer, R. E. (1969). *Hermeneutics: Inter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Gadamer*. 이한우(역)(2011).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 논문접수 2019년 5월 2일 / 1차 심사 2019년 6월 7일 / 게재승인 2019년 6월 19일

\* 육정미: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다. 현재 대전장대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 E-mail: yjm0116@gmail.com

\* 최성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swchoi@knue.ac.kr



## Abstract

## An Analysis of the Educational Relationship in the Novel Dong-ui-Bo-Gam\*

Yuk, Jungmi\*\*  
Choi, Sungwook\*\*\*

The novel Dong-ui-bo-gam depicts the conflict and joy among characters Yoo Uitae, Heo Jun and Yoo Doji with sanctions on oriental medicine in a delicate and thrilling manner. In particular, the novel describes Heo Jun and Yoo Doji, who are disciples of Yoo Uitae, competitively mastering medicine. This study took note of the plot of the novel from an educational point of view and looked at how the educational relationship developed between the characters. Based on the prior studies, the requirements for the formation, maintenance and termination of educational relationships were derived and the contents of the novel were interpreted in light of them. As a research method for identifying educational relationships, Chang Sangho's endogenous theory of education was taken as the main framework of analysis, and the novel text was analyzed based on the hermeneutic method.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were able to identify that Yoo Uitae and Heo Jun met the requirements of the educational relationship, while Yoo Uitae and Yoo doji's relationship did not. This contrasting plot of the novel, Dong-ui-bo-gam, follows the motif of literary works dealing with Seuseung-Jeja relations. The novel Dong-ui-bo-gam reveals what requirements are needed for teacher-student relations to move on to educational relationships, which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al relationship that goes on in schools and other places of life.

Key words: The novel Dong-ui-bo-gam, Educational relations, Seuseung, Jeja, Ascending education, Descending education

\* This study was based on JungMi Yuk's 2018 Master's thesis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First author, Teacher, Daejeon JangDae Elementary School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